

唐代 草書와 歌行體 草書歌의 상관성*

禹 在 鎬**

〈目 次〉

- | | |
|--------------------|----------------------|
| I. 서론 | 2. 草書를 노래한 당대의 詩歌 |
| II. 歌行體 시가의 형식과 특징 | IV. 草書와 歌行體 草書歌의 상관성 |
| III. 唐代의 草書와 草書歌 | V. 결론 |
| 1. 唐代 草書 개관 | |

I. 서론

草書는 隸書가 유행하였던 漢代에 필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던 서체이다. 杜度와 崔瑗에서 張芝와 黃象에 이어서 동한대의 章草를 시작으로, 魏晉代 王羲之와 王獻之의 今草를 거쳐, 唐代에는 강력한 국력과 문화 융성의 저력을 바탕으로 張旭과 懷素를 중심으로 하는 狂草가 창시되었다.¹⁾ 당대에는 비록 楷書가 확정되고, 예서 등 여러 서체가 유행하였지만, 다른 서체에 비해 초서가 크게 유행하였고, 이들 초서를 읊은 草書歌도 본격적으로 창작되었다. 당 이전의 詩歌에서 초서를 읊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데 반해, 당대에는 초서를 시로 읊은 시인들도 많이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1) 이러한 관점은 회소의 〈自敘帖〉에서 “夫草藁之作, 起於漢代, 杜度崔瑗, 是以妙聞, 迨乎伯英, 尤擅其美. 羲獻茲降, 虞陸相承, 口訣手授, 以至吳郡長旭.” 이라는 것에서도 그 대략적인 내용이 보인다.

있는데, 이는 당대에 초서가 크게 유행하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당대는 서예에서 해서가 성숙 확정되고 시가에서는 律詩가 확립된 시대이지만, 이와 더불어 특이하게 초서가 성행하였고 초서를 읊은 시가는 歌行體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가행체 시가의 형식과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당대 초서의 상황과 초서를 노래한 당대 시가에 대해 개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서와 가행체 시가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자유분방한 서체인 초서의 특성상, 초서를 노래한 당대의 시가 역시 주로 형식이 자유분방한 가행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당대의 초서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초서 관련 내용을 시가 형식으로 읊조리기에 가행체 시가가 가장 적당한 시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먼저 《全唐詩》를 통해 초서를 노래한 당대의 草書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출해본 후, 가행체 시가로 지어진 당대의 주요 초서가를 예로 들며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歌行體 시가의 형식과 특징

가행체 시가는 漢代의 樂府詩부터 지어졌고, 魏晉 이후 문인들이 악부시를 본받아 창작한 擬古樂府에서도 꾸준히 창작되었다. 〈大風歌〉, 〈猛虎行〉, 〈短歌行〉 등과 같이, 대체로 제목에 ‘歌’, ‘行’, ‘歌行’이란 용어가 덧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형식상으로는 5언이나 7언이 위주가 된 것, 그리고 중간에 雜言이 삽입된 작품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동일한 詩題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형식의 변화가 있어서, 魏晉 시기 曹操의 〈短歌行〉은 4언시로 되어 있지만, 남북조 시기의 徐謙의 〈短歌行〉은 절구시의 형식과 같은 5언 4구이며, 隋唐 시기 王建的 〈短歌行〉은 3언과 7언이 섞인 잡언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리고 曹丕의 〈燕歌行〉은 7언구로만 구성된 최초의 가행시이므로, 가행체의 형식은 5언 위주로 된 것, 7언 위주로 된

것, 3.5.7언의 잡언이 뒤섞인 형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편폭으로 보았을 때 4구의 절구 형식을 갖춘 것부터 길이의 제한이 없는 장편도 많이 창작 되었으므로, 일정한 격식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歌’, ‘行’, ‘歌行’ 이 세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는 宋代 張表臣의 《珊瑚鉤詩話》, 明代 徐師曾의 《文體明辨》, 清代 王士禎의 《池北偶談》 등 역대로 많은 전적에서 나름대로 특징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나,²⁾ 명쾌하고 분명하게 해석한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다. 이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원래 樂曲의 명칭으로 리듬의 완급이나 음률의 장단에 있어서 구별이 있었으나, 위진대 이후로는 악곡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형식만을 차용하여 의고악부시를 창작하게 되었으므로 그 용어상에 있어 점차 별다른 구분이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당대에 가행으로 명명된 몇몇 작품 중에는, 예를 들면 李白의 〈少年行〉은 五言絶句이고, 王維의 〈少年行〉은 七言絶句이며, 楊炯의 〈從軍行〉은 五言律詩인 것과 같이, 명칭만 가행인 작품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행체는 체제와 내용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구식에 있어서는 5언 7언 잡언 등 다양하지만 7언으로 된 시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이 5언으로 된 것이며, 중간에 잡언을 뒤섞어 구식에 변화를 주고자 한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격률은 비교적 자유로워 律句 拗句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轉韻에는 句數의 제한이 없어 두 구에서 열 몇 구에 한 번씩 환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구마다 한 번 換韻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많이 보인다. 셋째, 시가의 편폭은 白居易의 〈長恨歌〉나 〈琵琶行〉 같은 장편도 있고 두보의 〈貧交行〉처럼 칠언절구와 유사한 단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편이 훨씬 더 많다. 넷째, 내용상에 있어서 악부시는 본래가 敍事詩적인 전통을

2) 하문환 편, 김규선 역주, 《歷代詩話4》(전6권, 소명출판, 2013.11) 308-309쪽 《珊瑚鉤詩話》 卷3, 徐師曾의 《文體明辨》(全四冊, 昨晨社, 서울, 1984.3) 1冊 325쪽 卷6 〈樂府一〉, 王士禎의 《池北偶談》 卷17 〈歌行引〉 등. 이하 본고에 인용된 원전류 중에 卷數만 명기하고 특별한 서지 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지니고 있지만, 후대로 갈수록 서정적인 경향을 더 많이 지니게 되었다. 당대 이후에도 가행체 시는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풍격도 갈수록 다양해졌지만, 가행체 시가의 대체적인 모양과 격식은 당대에 모두 갖추어졌고, 성취도 가장 탁월하였다고 할 수 있다.³⁾ 이상과 같은 가행체 시가의 형식과 특징을 염두에 두고서 다음 장에서는 먼저 당대의 초서에 대해 개관해보고 아울러 당대에 창작된 초서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唐代의 草書와 草書歌

1. 唐代 草書 개관

서예의 기능은 실용성과 예술성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자 자체의 발달은 필사의 명확성과 쾌속성 이란 두 가지 대립 관념의 길항에 의해서 진보되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한대에 성행한 隸書부터 문자를 아름답게 하려는 의식이 있게 되었는데, 이는 한대부터 기능이 향상되어 사용되었던 서사도구 붓의 개량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나,⁴⁾ 당시 사람들의 미감 의식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동한시기 예서가 성숙된 이후 필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필획을 간단하게 줄여서 정착된 필체가 楷書이며, 필획이 복잡하여 필사 속도가 느린 예서의 필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필획을 생략하여 빠르고 편하게 서사할 수 있도록 만든 서체가 隸草와 章草 등의 草書였다.

동한 시기에 형성된 초서는 章草(書)라 하였는데, 한나라 章帝 때 이름이 정해졌다고 하여 章초라 한다고도 하고, 황제에게 문서를 올릴 때 대체로 章奏를 초서로 써서 올렸던 까닭에 章초라 한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장

3) 葉軍等著, 《中國詩學(四)》(上海東方出版中心, 199.5) 17-21쪽, 〈歌行〉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줄고, 〈文房四友를 읊은 唐詩에 관하여〉(《韓中言語文化研究》 第37輯, 韓國現代中國研究會, 2015.2.) 157-162쪽을 참조.

초는 杜度와 崔援 등을 거쳐서 張芝와 黃象에게로 이어졌다. 이후 장지가 창조한 초서를 今草(書)라 하였고, 이 금초와 구별하기 위해 장초를 古草(書)라고도 칭하였다. 장지의 초서는 비교적 예스럽고 질박하였으며 필획이 일필로 이어지는 듯하였으니 후대에 草聖이란 명성을 얻었다. 이후 위진대의 왕희지와 왕헌지 부자가 등장하여 초서를 성숙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왕희지는 행서와 초서를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 書聖이라 숭상되었고, 장지 초서의 직접적인 계승자라 칭해지는 왕헌지에 이르러 초서는 다시 한 번 변하여 위진대 최고의 초서가로 존중받았다.

당 太宗 때는 서예가를 전문적으로 배양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國學의 다섯째를 書學으로 두었고, 書學博士라는 직위도 두었으니, 서예가 이전의 다른 어떤 왕조 때보다 흥성하였다. 특히 당 태종 李世民은 서예를 사랑하였고, 특히 왕희지의 서예 중 행서를 매우 좋아하였다. 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비록 당나라 초기에는 초서 보다 해서와 행서가 더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당나라 초기의 사대서예가인 歐陽詢, 虞世南, 褚遂良, 薛稷 등이 모두 해서와 행서로 이름이 높았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풍격을 지녀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지만 대체로 이들의 서풍은 왕희지 서풍의 계승 내지는 지속이었다. 초서에 있어서도 당나라 초기에는 왕희지의 위진 서풍의 전통과 당나라 서풍이 결합한 초서가 출현하였으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초서 대가로는 孫過庭, 李懷琳, 賀知章 등을 들 수 있다.⁵⁾ 이후 당나라 초기의 해서 행서가 성숙하여 안진경은 왕희지의 해서와 행서를 일변시켜 성당의 기상을 대표하는 너그럽고 웅장하면서 온후한 안진경체를 창조하였고, 張旭과 懷素를 중심으로 하여 장지와 왕헌지의 초서를 발전시켜 기세가 드높은 狂草를 창시하였다.

5) 王繼安 著, 趙誠庸 譯, 《草書概論》(도서출판 다운샘, 2012.5), 242-254쪽 참조. 저자는 당나라 초서를 개괄하면서 대표적인 초서가로 당나라 초기의 孫過庭과 李懷琳과 賀知章, 성당 이후의 張旭, 懷素, 楊凝式 등 여섯 명을 열거하며 이들의 略傳과 대표작 및 서풍과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당나라 초기의 사대서예가에 대해서는 薛稷 대신 때로는 柳公權을 넣기도 한다.

唐代에는 강력한 국력과 문화 융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서단에서 많은 서예가가 배출되면서 거대한 혁신의 풍토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혁신의 풍토에서 장욱이 제일 먼저 장지와 왕헌지의 초서를 크게 발전시켰고, 승려인 회소는 더욱 미친 것으로 미친 것을 계승하여 기세가 크고 둥글며 호방한 광초서를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초서의 발전이 광초서에 이르면 서사의 실용성과 명확성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문자를 아름답게 꾸미는 예술성은 더욱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초서의 풍격이 성립된 이후 초서에 뜻을 두면서 초서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당대의 대표적인 초서 대가로 승려들이 유독 많이 등장하였다.⁶⁾

송대의 《宣和書譜》 권18~19에는 송대 궁중서고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는 당나라 초서가의 초서 작품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略傳과 작품명과 작품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 당나라 때의 초서가로 모두 21명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후대에 초서 대가로 크게 이름을 떨친 하지장, 손과정, 張旭, 懷素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지만, 裴行儉, 張仲謀, 胡季良 등 후대에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상당 수 열거되어 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당대 초서가로 거론되고 있는 21명 중 승려 신분으로 초서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草書僧이 懷素, 亞棲, 高閑, 旿光, 景雲, 貫休(禪月), 夢龜, 文楚 등 거의 40%에 가깝다는 점이다.⁷⁾

당대에는 불교 예술이 극도로 발달하여 회화 조각 서예를 포함한 불교의 조형예술이 매우 발달하였다. 아울러 불교계에서는 불경의 번역과 전파에 필요한 寫經의 광범위한 유행으로 특히 서예가 발달하였으니, 당나라 서예 대가 중에 승려가 유독 많다는 점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승려이면서 書聖으로 불리어졌던 隋 때의 승려 智永의 영향으로 당대에는 초서승이 서단에서 유난히 맹위를 떨쳤다. 이는 당대의 초서가 중

6) 范潤華 著, 곽노봉·이정자 역, 《광초미학(狂草美學)》(도서출판 다운샘, 2016. 3), 13-15쪽 참조.

7) 王伯敏 等 主編, 《書學集成》(全3冊 중 漢-宋編, 河北美術出版社, 2002.6) 589-600쪽에 수록된 《宣和書譜》 卷18-19 〈草書〉 6-7 참조.

에서 회소, 변광 등 승려의 초서를 읊은 시가가 유독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 草書를 노래한 당대의 詩歌

당대에 서예를 주제로 한 시가는 모두 95題 백여 수의 시를 선별할 수 있었는데,⁸⁾ 이들 선별된 시가에서 초서를 주제로 하거나 초서와 관련한 시만을 별도로 추출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草書 관련 唐代 書藝詩 一覽表〉

全唐詩卷數	詩人	詩題
1. 卷132-9	李頎	〈贈張旭〉
2. 卷167-21	李白	〈草書歌行〉
3. 卷204-9	王維	〈懷素上人草書歌〉
4. 卷204-10	竇冀	〈懷素上人草書歌〉
5. 卷204-11	魯收	〈懷素上人草書歌〉
6. 卷204-12	朱逵	〈懷素上人草書歌〉
7. 卷204-13	許瑤	〈題懷素上人草書〉
8. 卷214-3	高適	〈醉後贈張九旭〉
9. 卷221-26	杜甫	〈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
10. 卷255-11	蘇渙	〈懷素上人草書歌〉 一作〈贈零陵僧〉
11. 卷261-3	任華	〈懷素上人草書歌〉
12. 卷265-23	顧況	〈蕭鄆草書歌〉

8) 이에 대해서는 즐고,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第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12) 148-151쪽 참조. 그 당시에는 당대 서예시를 67題 68首로 산정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당대 서예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참고서적의 자료를 보충하여 현재는 총 99題 백여 수로 분량이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全唐詩》(上·下, 臺灣 宏業書局, 民國71年, 再版)를 저본으로 하고,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4)에서 정리한 당대 서예시 목록을 참조하였다. 《全唐詩》에 선택되지 않은 서예시도 다수 있으므로, 宋 陳思가 찬한 《書苑菁華》와 근래에 출간된 楊克炎 選注의 《書法詠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등 기타 서적에 수록된 서예시도 보충하였다.

13. 卷273-18 戴叔倫 〈懷素上人草書歌〉
 14. 卷327-16 權德輿 〈馬秀才草書歌〉
 15. 卷359-32 劉禹錫 〈洛中寺北樓見賀監草書題詩〉
 16. 卷379-13 孟郊 〈送草書獻上人歸廬山〉
 17. 卷511-26 張祜 〈高閑上人〉
 18. 卷578-56 溫庭筠 〈秘書省有賀監知章草題詩筆力過健
風尚高遠拂塵尋玩因有此作〉
 19. 卷663-29 羅隱 〈送晉光大師(師以草書應制)〉
 20. 卷682-43 韓偓 〈草書屏風〉
 21. 卷687-45 吳融 〈贈晉光上人草書歌〉
 22. 卷687-47 吳融 〈贈廣利大師歌〉
 23. 卷689-21 陸希聲 〈寄晉光上人〉
 24. 卷715-25 楊凝式 〈題懷素酒狂帖後〉
 25. 卷720-2 裴說 〈懷素臺歌〉
 26. 卷746-25 陳陶 〈題贈高閑上人〉
 27. 卷760-2 張格 〈寄禪月大師〉
 28. 卷821-6 皎然 〈張伯高草書歌〉
 29. 卷821-22 皎然 〈陳氏童子草書歌〉
 30. 卷828-32 貫休 〈觀懷素草書歌〉
 31. 卷837-35 貫休 〈晉光大師草書歌〉
 32. 《唐音癸籤》卷33 司空圖 〈晉光大師草書歌〉
 33. 《書苑菁華》卷17 馬雲奇 〈懷素師草書歌〉
 34. 《書苑菁華》卷17 史巖 〈修公上人草書歌〉
 35. 《書苑菁華》卷17 可朋 〈觀夢龜草書〉⁹⁾

9) 이상 열거한 시중에는 楊凝式의 〈題懷素酒狂帖後〉처럼 五代 때의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도 다수 있으나 이 시가들이 《全唐詩》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고의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그러나 卷176-12 李白의 〈送賀賓客歸越〉, 卷191-6 韋應物的 〈懷素友子西〉, 卷238-68 錢起的 〈送外甥懷素上人歸鄉侍奉〉, 卷582-37 溫庭筠의 〈題賀知章故居壘韻作〉 등 4수는 시체에 草書大家인 賀知章과 懷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초서와 관련된 시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이 시들을 서예시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卷808-50 懷素의 〈題張僧繇醉僧圖〉는 회소가 창작한 시이지만 題畫詩라 할 수 있으므로 역시 본고의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의 시가를 분석해보면 당대에 지어진 草書家로 현재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는 서예가는 賀知章, 張旭, 懷素上人, 蕭羴, 馬秀才, 獻上人, 高閑上人, 竝光上人(廣利大師), 禪月大師(貫休), 陳氏童子, 修公上人, 夢龜 등 총 12명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현재까지 중국 서예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대서예가로는 賀知章, 張旭, 懷素 정도를 들 수 있고, 나머지 馬秀才, 獻上人, 陳氏童子 등 몇몇은 서예사에서의 비중보다는 생존했던 당시 주변 문인들에게 칭송받았던 초서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수로 보았을 때 懷素上人の 草書歌가 전체 시 35수 중 14수나 되어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¹⁰⁾ 그 다음으로 竝光上人(廣利大師) 6수, 張旭 4수, 그리고 賀知章과 高閑上인이 각 2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蕭羴, 馬秀才, 獻上人, 禪月大師, 陳氏童子, 修公上人, 夢龜 등이 각각 1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草書家들의 초서를 시로 읊은 草書歌를 작가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 서예사에서 가장 유명한 초서가로 먼저 狂草의 대가인 張旭과 懷素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초서를 읊은 시가 모두 18수가 되어 전체 시의 절반이 넘는다. 둘째, 懷素, 獻上人, 高閑, 竝光(廣利), 禪月(貫休), 修公, 夢龜 등 書僧의 초서를 읊은 시가 모두 26수나 되어 당대 초서를 읊은 시 전체의 75% 가량을 점하고 있는데, 이는 승려와 초서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셋째, 특

10) 貫休의 〈회소 초서를 보고 노래하다(觀懷素草書歌)〉라는 시에서는 “이들 옛날의 장위와 임화와 엮계량 같은, 여러 시인들이 시를 지어 드린 것이 어찌 과장이리오.(伊昔張謂任華葉季良, 數子贈歌豈虛飾.)”라고 한 것을 보면, 만당 시기까지 회소 초서를 읊은 시가로 張謂와 任華와 葉季良의 시가 등이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 장위의 시는 殘句만 전하고 있고 葉季良의 시는 전하지 않는다. 아울러 王琦의 《李太白全集》(全三冊,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中華書局, 1990, 456-458쪽) 卷8 〈草書歌行〉 주에서는 《一統志》를 인용하여 “회소에게 시를 기증한 자가 37인이나 되었고, 이들은 모두 당세의 명사였으며, 顏眞卿이 서문을 지었다.(贈之歌者三十七人, 皆當世名流, 顏眞卿作序.)”고 하였으나, 현전하는 당대 회소 초서가는 위의 목록에서 인용한 14수가 전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고찰과 발굴이 필요할 듯하다.

기할만한 것은 중당 이전의 草書歌는 주로 문인들의 창작이었으나, 中晚唐 시기에는 皎然, 貫休, 可朋 등 詩僧들이 창작한 초서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볼 때, 서승과 초서와의 관련성, 중당 이후 시승과 서승과의 관계가 갈수록 밀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중만당 시기에는 시승과 서승의 시가분야에서의 창작 활동과 교류가 꽤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의 형식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칠언시가 전체 시 35수 중에 20수를 차지하고 있고, 칠언 위주의 雜言體가 7수나 되었지만, 오언시는 8수에 불과하였다. 칠언시와 오언시의 분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칠언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歌行體의 형식으로 창작된 시가가 20수나 되어 읊시나 절구 등 근체시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전형적인 草書歌의 형식은 7언 위주의 七言體 가행체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행체 시가의 형식과 특징, 당대 초서, 그리고 당대에 창작된 초서가를 염두에 두고서 다음 장에서는 이들 초서가 중 가행체 형식을 사용한 전형적인 작품 몇 수를 인용하며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Ⅳ. 草書와 歌行體 草書歌의 상관성

회소의 〈自敍帖〉에는 司勳員外郎 盧象, 禮部侍郎 小宗伯 張謂, 吏部侍郎 偉陟, 永州刺史 王崑, 處士 朱逵, 御使 李舟, 御史 許瑤(瑄), 御史 戴叔倫, 御史 竇冀, 司勳員外郎 錢起 등 10여 시인의 〈회소초서〉가 인용되어 있다. 이 시들에서는 회소 초서가 지닌 형태의 빼어남, 機微와 격식의 오묘함, 필사의 신속함, 타인과의 우열 등 회소 초서의 특징과 풍격에 대해 서술하면서, 한결같이 회소 초서를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다.

11) 당대에 초서승이 특히 많았던 것을 고려해보면, 서승과 초서와는 어떤 불가분의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본고의 주제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으므로,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 기록에 의하면 당세의 명사 37인이 회소 초서를 찬미하는 시를 지어 회소에게 기증해주었고 顏眞卿이 서문을 지었다고 하고 있으니,¹²⁾ 회소 초서를 노래한 시가가 최소 37수 이상은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회소 〈自敍帖〉에 인용된 당시 문인 명사들의 獻贈詩는 10여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全唐詩》 등에 실려 현전하는 〈회소초서가〉는 모두 14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먼저 〈自敍帖〉에 언급되지 않은 작품 중 任華의 가행체 시 한 수를 인용해본다.

吾嘗好古,
古來草聖無不知,
豈不知右軍與獻之.
雖有壯麗之骨,
恨無狂逸之姿.
中間張長史,
獨放蕩而不羈,
以顛爲名傾蕩於當時.
張老顛,
殊不顛於懷素.
顛懷素,
乃是顛.
人謂爾從江南來,
我謂爾從天上來.
負顛狂之墨妙,
有墨狂之逸才.
狂僧前日動京華,
朝騎王公大人馬,
暮宿王公大人家.

난 일찍이 옛 것을 좋아하여,
예로부터 모르는 초성 없는데,
어찌 왕희지와 왕헌지를 모르리?
비록 강건하고 아름다운 골기 넘치나,
광일한 자태 없음을 아쉬워했네.
그 중에 장옥은,
유독 방탕할 뿐 엄매임이 없고,
장전으로 불리며 당시를 뒤흔들었네.
장옥은 늘 미쳐 있으나,
회소보다는 미치지 않았네.
미친 회소야말로,
정말로 미친 것이라네.
사람들은 그대를 강남에서 왔다 하나,
나는 그대를 하늘에서 왔다 하겠네.
미친 글씨의 묘함을 지녔으니,
묵광의 빼어난 재주 지녔다네.
미친 스님 회소는 그제 장안을 뒤흔들어,
아침에는 왕공대인들의 말을 타고,
저녁에는 왕공대인들의 집에서 자네.

12) 王琦, 앞의 책 卷8 〈草書歌行〉의 주에 실린 이 내용은 明代 彭大翼이撰한 《山堂肆考》 권147 〈釋教·草書獨步〉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실려 있다. 이 문장에서는 회소에게 시를 헌정한 명사가 39인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37인의 오기인 듯하다.

誰不造素壁,
誰不塗粉壁,
粉壁搖晴光,
素屏凝曉霜。
待君揮灑兮不可彌忘。
駿馬迎來坐堂中,
金盆盛酒竹葉香。
十杯五杯不解意,
百杯以後始顛狂。
一顛一狂多意氣,
大叫一聲起攘臂。
揮毫倏忽千萬字,
有時一字兩丈二。
翁若長鯨潑刺動海島,
欸若長蛇戔律透深草。
回環繚繞相拘連,
千變萬化在眼前。
飄風驟雨相擊射,
速瀲灩拉動檐隙。
擲華山巨石以爲點,
掣衡山陣雲以爲劃。
興不盡,
勢轉雄,
恐天低而地窄,
更有何處最可憐,
裊裊枯藤萬丈懸。
萬丈懸,
拂秋水,
映秋天。
或如絲,
或如發,
風吹欲絕又不絕。
鋒芒利如歐冶劍,

누가 깨끗한 흰 벽을 만들지 않겠소?
누가 하얗게 벽을 회칠하지 않겠소?
회칠한 하얀 벽에 맑은 빛 비치고,
깨끗한 흰 병풍에는 아침 이슬 맺혀 있네.
그대 모셔 휘호한 일 오랫동안 잊지 못하겠네.
준마를 집으로 맞아들여 마루에 앉으니,
금 그릇에 가득한 술 죽엽청의 향기 그윽하네.
다섯 잔 열 잔 개의치 않고서,
정신없이 마시고나니 광기가 발동하네.
넘치는 광기 따라 의기가 올라,
크게 한 번 소리치며 일어나 소매 걷어붙이네.
순식간에 수천 자 휘갈겨 써내려가니,
때로는 한 글자 크기가 두 길이 넘네.
별안간 큰고래 뛰어올라 섬을 흔드는 것 같고,
돌연 긴 뱀이 빠르게 숲으로 숨어드는 것 같네.
빙빙 감돌아 획들은 서로 얽히고,
끝없는 변화 눈앞에 펼쳐지네.
몰아치는 비바람은 서로 쏘아 붙이고,
재빠르게 날아서 처마 틈으로 스며드네.
회산의 큰 돌을 집어던져 점으로 삼고,
형산의 뭉게구름을 끌어와 획으로 삼네.
흥은 다함이 없고,
필세는 웅장하게 변해가니,
하늘이 낮고 땅이 좁을까 두렵네.
또 어느 곳이 가장 사랑스러운가,
하늘하늘 만 장이나 늘어진 마른 등나무라네.
만 장이나 길게 매달려,
가을 강물에 스치며,
가을 하늘에 비치네.
어떤 획은 실 같기도 하고,
어떤 획은 머리카락 같기도 하여,
바람 불면 끊어질 듯 말듯 하네.
뾰족한 끝의 날카로움 구야가 만든 검 같고,

勁直渾是并州鐵。
 時復枯燥何禱祀，
 忽覺陰山突兀橫翠微。
 中有枯松錯落一萬丈，
 倒挂絕壁蹙枯枝。
 千魍魎兮萬魍魎，
 欲出不可何閃尸。
 又如翰海日暮愁陰濃，
 忽然躍出千黑龍。
 夭矯偃蹇，
 入乎蒼穹。
 飛沙走石滿窮塞，
 萬里颼颼西北風。
 狂僧有絕藝，
 非數仞高牆不足以逞其筆勢。
 或逢花箋與絹素，
 凝神執筆守恒度。
 別來筋骨多情趣，
 霏霏微微點長露。
 三秋月照丹鳳樓，
 二月花開上林樹。
 終恐絆騏驎之足，
 不得展千里之步。
 狂僧狂僧，
 爾雖有絕藝，
 猶當假良媒。
 不因禮部張公將爾來，
 如何得聲名一旦喧九垓。

강하고 곧음은 마치 병주의 철이로다.
 때로는 깡마름 속에서 생기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음산의 우뚝함과 질푸름 느끼게 하네.
 그 중에 고송가지 만 길이나 어지럽게 뒤섞여,
 절벽에 거꾸로 걸려 마른 가지 타고 오르네.
 모든 산귀신들 온갖 물귀신들,
 나오려다 안 되니 어찌나 어른거리는지.
 또 해질 무렵 북해의 짙은 그늘 속에서,
 별안간 수많은 검은 용이 솟아오르는 듯하네.
 굽혔다 폈다 자유로이 선회하여,
 아득한 하늘로 들어가누나.
 날리는 모래 구르는 돌이 변방에 가득한데,
 만리에서 쟁쟁 서북풍 불어오네.
 미친 스님 회소는 빼어난 재주 있어,
 높디높은 담장이라야 그 필세 충분히 뽐내겠네.
 간혹 화선지와 흰 비단 접할 때마다,
 정신 집중하여 붓 잡고 오랫동안 응시하네.
 특별한 근골에 정취도 많아,
 자욱하게 흘날리는 점획 길게 드러내었네.
 구월 달빛이 단봉루에 비치는 듯하고,
 이월의 꽃이 상림의 나무에서 피는 듯하네.
 마침내 두려운 건 천리마의 발을 묶어두어,
 천 리 길 가지 못하게 할까라는 것이네.
 광승 회소여,
 그대는 뛰어난 재주 가졌지만,
 오히려 마땅히 좋은 매파를 얻어야 하리.
 예부시랑 張謂가 그대를 칭찬하지 않았다면,
 구중천이 떠들썩한 명성
 어떻게 하루아침에 얻었겠는가.

이 시는 任華의 〈회소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이다. 임화의 자세한 사적은 알 수 없지만, 서예와 시에 뛰어났으며, 李白이나 杜甫와

같은 시대거나 혹은 조금 뒤시대 사람으로, 당 玄宗 때에 활동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그의 시는 《全唐詩》에 단 3수만 남아 있다. 그 3수 가운데 한 수는 이백을, 한 수는 두보를 읊었고, 나머지 한 수가 바로 이 시이니, 당대 문학의 두 거장과 서예의 거장을 각각 시로 읊고 있는 셈이다. 당대의 많은 〈懷素上人草書歌〉 중에서 이 시는 가장 길고, 서사 기법도 가장 독특하다. 칠언 위주이지만 구의 형식 변화는 다양하여 3언에서부터 9언까지 뒤섞어 교대로 사용하였으며, 가장 긴 구절은 12언에 이른다. 더욱이 산문형식을 인용하여 전체시의 운율이 느리고 빠르며 들쭉날쭉하여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마치 회소 본인이 쓴 초서와 같이 곡절이 많고 자유분방하다. 이 시의 結構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회소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송상 받고 조정과 재야에 두루 영향을 미친 것을 쓰고 있다. 중반 부분은 본 시의 절정 부분으로, 회소가 창작할 때의 상황을 먼저 쓴 후 작가가 회소의 서예작품을 감상할 때 받은 여러 가지 느낌과 연상을 썼다.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회소가 큰 명성을 얻고 원근 각처에 이름을 떨치게 한 가장 지대한 공헌자로 禮部侍郎 張謂를 지목하였는데, 장위는 일찍이 도처에서 회소를 널리 칭찬하여 회소의 명성이 크게 날리게 하였다. 회소 〈自敘帖〉에는 장위가 회소의 초서를 칭찬하여 “뱀과 살무사가 신속히 기어가는 기세로 좌중에 들어오는 것 같고, 소나기 내리고 회오리바람이 이는 세찬 소리 집에 가득 찬 것 같네(奔蛇走虺勢入座, 驟雨旋風聲滿堂.)”라고 비유한 한 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장위의 이 시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위의 시를 포함하여 현전하는 회소 초서가는 거의 대부분 가행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¹³⁾

회소의 초서를 읊은 시 이외에, 淸光上人の 초서를 읊은 시가 6수, 張旭의 초서를 읊은 시가 4수로 그 다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각 한 수씩 두 수를 차례로 보도록 한다. 다음은 吳融의 〈변광 스님에게 초서가를 드리다(贈淸光上人草書歌)〉(卷687-45)라는 시이다. 淸光은 속성이 吳

13) 이에 대해서는 줄고, 〈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中國語文學》 第77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8.4)를 참조.

이고, 자가 登封이며, 浙江 永嘉 사람이다. 시를 잘 지었고, 글씨를 잘 썼는데, 詩作에는 옛 곡조가 많았고 서예는 초서가 많았다. 《高僧傳》에서는 변광에 대해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고, 율희성이 예장에 귀양가서 관리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는 그를 배알하였다. …… 힘써 그의 초서 비법을 바라 이에 그의 오지발등걸을 전수받았다. 변광의 서체는 마땅히 굳세고 강건하여졌고, 팔뚝을 돌려서 붓을 거두었으니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 소종이 불러 황제의 어탑 앞에서 글씨를 쓰게 하고는 자방포를 하사하였다.”고 하였다.¹⁴⁾

篆書朴,	전서는 질박하고,
隸書俗,	예서는 통속화 되었으나,
草聖貴在無羈束.	초서가 귀함은 얽매임 없다는 데 있다네.
江南有僧名晉光,	강남에 계시는 스님 법명이 변광인데,
紫毫一管能顛狂.	자호 붓 한 자루를 미친 듯이 다룰 수 있네.
人家好壁試揮拂,	인가에 글쓰기 좋은 벽 있으면 붓 휘둘러테니,
瞬目已流三五行.	순식간에 이미 너댓줄을 써 내려가네.
摘如鉤,	摘 획은 갈고리 같고,
挑如撥,	挑 획은 등불걸이 같아,
斜如掌,	기운 획은 손바닥 같고,
回如幹.	도는 획은 소용돌이 같네.
又如夏禹鎖淮神,	또한 우임금이 회수의 강신을 가둔 것 같이,
波底出來手正拔.	물살 속에서 손이 뽑아져 나오는 듯 하고,
又如朱亥錘晉鄙,	또한 주해가 진비를 격살한 것과 같이,
袖中擡起腕欲脫.	소매 속에서 팔뚝을 빼어 올리려는 듯하네.
有時軟縈盈,	때로는 부드럽게 구불구불 휘돌아,
一穗秋雲曳空闊.	한 무더기 가을 구름이 창공에 뿌려진 것 같네.
有時瘦嶮巖,	때로는 야위면서도 높고 가팔라,

14) 贊寧 撰, 《宋高僧傳》(全二冊, 中華書局, 1987.8) 卷30, 《雜科聲德篇》第12, 《後唐明州國寧寺晉光傳》“長於草隸, 聞陸希聲謫宦於豫章, 光往謁之. …… 苦祈其草法, 而授其五指撥鐙訣. 光書體當見適健, 轉腕回筆, 非常人所知. …… 昭宗詔對御榻前書, 賜紫方袍.”

百尺枯松露槎枿。
忽然飛動更驚人，
一聲霹靂龍蛇活。
稽山賀老昔所傳，
又聞能者惟張顛。
上人致功應不下，
其奈飄飄滄海邊。
可中一入天子國，
絡素裁縑灑毫墨。
不繫知之與不知，
須言一字千金值。

백 척 소나무가 그루터기를 드러내는 것 같네.
갑자기 날아 올라 사람을 더욱 놀라게 하고,
한 바탕 벼락 소리에 용과 뱀이 살아나는 것 같네.
회계의 하지장이 그 옛날에 전했던 글씨 있고,
다시 듣자하니 오로지 장옥만이 능하다 하네.
스님께서 공을 이룬 것은 응당 낮지 않은데,
장차 어찌하여 바닷가를 표연히 떠도는 것인가.
딱 들어맞네, 황제 계신 수도로 일단 들어가,
희고 고운 비단옷 맞춰 두르고 필묵 휘두르게 되었음.
그를 알든 모르든 관계 없이,
모름지기 한 자가 천금의 가치 있다 말하네.

당말의 초서는 기본적으로 狂草의 유풍과 여운을 계승하여 명가 또한 적지 않았는데, 변광 스님은 비교적 저명한 승려 서예가 중의 한 명이였다. 변광은 초서를 잘 써서 여러 전적에서는 그의 초서에 대해 “비록 지영과 회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또한 스스로 충분히 일가의 법을 이루어 당시에 일컬어지는바 되었다.”고 하였다.¹⁵⁾ 그는 일찍이 서예로 황제가 하사하는 자방포를 받은 적이 있고, 이 때문에 그의 글씨는 당시에 더욱 진귀하게 평가되어, 글자 한 자가 천금의 가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酬贈詩는 과장되게 수식으로 일관한 일반적인 應酬 작품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작가는 전혀 구속받지 않고 미친 듯한 광초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전반부에 여러 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단순하게 내려갔는데, 마치 변광의 초서 작품과 마찬가지로 기세가 커서 진지함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에는 당대의 초서 대가인 하지장과 장옥을 끄집어내면서 변광이 그들과 비교하여 “스님께서 공을 이룬 것은 응당 낮지 않다(上人致功應不下)”고 지적해내면서 변광의 초서를 극구 추켜세우고 있다.

15) 《宣和書譜》 卷19와 《六藝之一錄》 卷333 〈釋晷光〉 조목에 같은 내용이 동시에 실려 있다. “雖未足以與智永懷素方駕，然亦自足一家法，爲時所稱。”

다음은 詩僧 皎然이 지은 <장옥의 초서 노래(張伯高草書歌)>(卷821-6)라는 시이다.

伯英死後生伯高,	장지가 죽은 후에 장옥이 태어나,
朝看手把山中毫。	아침마다 승산의 자호필을 손에 잡네.
先賢草律我草狂,	선현의 초서는 규칙에 얽매었지만 장옥 초서는 방일하여,
風雲陣發愁鍾王。	풍운의 진 펼쳐내니 종요와 왕희지를 근심스럽게 하네.
須臾變態皆自我,	잠깐 사이 변한 형태는 모두 장옥에게서 시작하니,
象形類物無不可。	천지 형상과 사물의 변화를 써내지 않음이 없네.
閩風游雲千萬朵,	낭풍산에 떠도는 구름은 천만 송이나 되는데,
驚龍蹴踏飛欲墮。	놀란 용이 밟고서 날아오르다 떨어지려 하네.
更睹鄧林花落朝,	다시 등림을 보니 꽃잎들이 떨어지는데,
狂風亂擾何飄飄。	광풍이 어지럽게 뒤흔드니 어찌나 날리는지.
有時凝然筆空握,	때로는 정신을 모아 빈손에 붓을 잡으면,
情在寥天獨飛鶴。	정은 고요한 푸른 하늘을 홀로 나는 학이라네.
有時取勢氣更高,	때로 자태를 잡으면 기운이 더욱 더 높으니,
憶得春江千里濤。	기억컨대 봄 강물에 이는 천리 파도인 듯하네.
張生草絕難再遇,	장옥의 뛰어난 초서는 다시 만나기 어려워,
草罷臨風展輕素。	글씨 쓴 후 바람에 말리니 얇은 흰 비단 펼친 듯하네.
陰慘陽舒如有道,	겨울은 참담하고 여름 화사함은 도리가 있는 듯하니,
鬼狀魑容若可懼。	귀신 형상 요괴의 용모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같네.
黃公酒壚輿偏入,	황공의 술집에 흥이 일어 살짝 들어가 보니,
阮籍不嘖嵇亦顧。	완적은 성내지 않고 혜강 역시 돌아보네.
長安酒勝醉後書,	장안 주점의 편액을 취한 후 써주어야겠으니,
此日騁君千里步。	이날 그대를 초빙하러 천리 걸음 달려가네.

당대의 유명한 詩僧인 皎然은 속성이 謝로 남조 宋 때의 대시인 謝靈運의 10대 손인데, 그의 시문은 顏眞卿과 韋應物에게 칭찬을 받았다. 교연의 이 시는 張旭의 狂草를 칭찬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伯英은 동한 때의 대서예가 張芝의 자로 초서를 잘 써서 草聖이란 명칭이 있었고, 伯高는 당대의 대서예가 장옥의 자로 장옥 역시 초성이란 명칭이 있었다. 장옥의 광

초는 전인들의 궤적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草律’을 변화시켜 ‘草狂’이 되었다. 草律이란 초서에서 규율을 중시함으로써, 구속이 심하여 호방한 기세가 부족한 것을 가리키며, 草狂이란 마음대로 붓을 휘둘러 미친 듯이 쓰는 초서가 광일하고 방자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마음대로 붓을 휘둘러 미친 듯이 쓰는 광초의 가장 큰 특징은 진정으로 자아를 발휘하는데 있다. 남김없이 거침없이 표현하여, 정을 써내고 뜻을 그려낸다. “귀신의 형상 요괴의 용모(鬼狀魍容)”에서 ‘鬼魍’는 본래 귀신이나 요괴 또는 도깨비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장욱 초서의 기세가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혼을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寫意의 광초는 ‘象形類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연상을 하게 하거나 계발을 하도록 해준다. 이 시에서 언급한 ‘象形類物’은 장욱의 광초에 깊고 넓은 내용이 기탁되어 있음을 가리키며, 韓愈가 <고한상인을 보내며라는 시의 서문(送高閑上人序)>에서 “기쁨과 성냄 근색함과 곤궁함, 근심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 원망과 한탄 애뜻함과 흠모함, 술에 흠뻑 취함 무료함 불평 등이 마음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반드시 초서로 그것을 펼쳐내었다. 사물을 관찰해보고는 산과 물 단애와 계곡, 새와 짐승 벌레와 물고기, 초목의 꽃과 열매, 해와 달과 못별, 바람과 비와 물과 불, 벼락과 천둥, 가무와 전투 등 천지 사물의 변화를 보고 기뻐하고 놀라워할 만한 것들을 모두 글씨에 덧붙여놓았다.”라는 설명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이 또한 시인들이 광초를 매우 좋아하는 중요한 한 원인이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 네 구절에서는 장욱 초서와 기타 서예가들의 서로 다른 점은 律과 狂의 차이임을 지적하였고, 중간 단락에서는 장욱의 광초가 物象에서 근원하여 물상을 궁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교적 많은 연상을 준다고 하였으며, 마지막 여덟 구에서는 장욱의 遺墨을 보며 그 옛날

16) 韓愈, <送高閑上人序>(이종한 역주, 《한유산문역주2-書啓·贈序》 진5책, 소명출판, 2012.6, 434-437쪽 참조) “喜怒窘窮, 憂悲愉佚, 怨恨思慕, 酣醉無聊不平, 有動於心, 必於草書焉發之. 觀於物, 見山水崖谷, 鳥獸蟲魚, 草木之花實, 日月列星, 風雨水火, 雷霆霹靂, 歌舞戰鬪, 天地事物之變, 可喜可愕, 一寓於書.”

황공의 술집에서 竹林七賢의 일원이었던 阮籍(210-263)과 嵇康(223-263)의 고사¹⁷⁾를 비유적으로 인용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장옥에게 무한한 감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며 마무리하였다.

이 외에 당대의 초서가로 賀知章, 蕭羴, 馬秀才, 獻上人, 高閑上人, 禪月大師, 陳氏童子, 修公上人, 夢龜 등의 초서를 읊은 시가 있는데, 이들 시가도 칠언 가행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칠언 위주의 잡언체인 史崧의 <수공 스님의 초서 노래(修公上人草書歌)>라는 시 한 수를 더 보기로 한다.¹⁸⁾ 이 역시 서승의 초서를 읊고 있는 시인데, 사옹은 晚唐 사람이란 것만 알려져 있을 뿐, 그에 관한 자세한 사적이나 상황은 알려진 것이 없다. 修公上人是 修上人이라고도 하며, 만당 때의 서예가로만 알려져 있다. 明代 陶宗儀의 《書史會要》에 “초서를 잘 썼다(工草書)”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¹⁹⁾ 역시 그에 대한 자세한 사적은 알 수 없다.

眞蹤草聖今古有, 修公學得誰及否. 古人今人一手書, 師今書成在兩手. 書時須飲一斗酒, 醉後掃成龍虎吼. 風雨驚分魍魎走, 山嶽動分龍蛇鬪. 千尺松枝如蠹朽, 欲折不折挂巖口. ²⁰⁾	해서와 광초는 예나 지금이나 모두 있지만, 수공상인이 배운 서예는 누가 미칠 수 있으리.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한 손으로만 쓰지만, 선사는 지금 글씨를 쓰면서 두 손으로 쓴다네. 글씨를 쓸 때 반드시 한 말 술을 마시고는, 취한 후 붓을 들면 용과 뱀이 포효하는 듯하네. 비바람이 놀람이여 도깨비들이 달아나는 듯하고, 산악이 움직임이여 용과 뱀이 싸우는 듯하네. 천 척의 솔가지가 좀 먹어 썩으려는 듯한데, 부러질 듯 말 듯 바위 앞에 걸려 있네.
---	--

17) 黃公酒壚와 阮籍 嵇康의 고사는 《世說新語·傷逝》에 나온다.

18) 이 시는 《全唐詩》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宋代 陳思가 찬한 《書苑菁華》 卷 17에 실려 있다.

19) 《書史會要》 卷5 “釋修上人工草書.” 倪濤의 《六藝之一錄》 卷333, 《御定佩文齋書畫譜》 卷30에도 《書史會要》의 이 내용을 단순히 인용하여 옮겨 실고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

20) “風雨 …… 巖口”까지 네 구절이 없는 판본도 있다.

張旭骨,	장옥의 골격이요,
懷素筋,	회소의 힘줄인데,
筋骨一時傳斯人.	골격과 힘줄이 한 번에 이 사람에게 전해졌네.
斯人傳得妙通神,	이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묘하고도 신통하여,
攘臂縱橫草復眞,	팔뚝 걷고 종횡으로 해서와 초서를 휘날리니,
一身疑是兩人身.	한 사람 몸에 아마도 두 사람이 있는 듯하네.

당대 스님 중에서 광초를 잘 썼던 사람은 특히 많았고, 수공상인 역시 그 중 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위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듯, 다른 사람들은 글씨를 단지 한 손으로 썼지만 그는 해서에도 못하고 초서에도 능하면서 왼손 오른손을 모두 사용하여 두 손으로 두 가지 본령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공상인이 광초 대가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였다. 이러한 독특한 조예는 당연히 많은 연습과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옹은 수공스님이 글씨 쓰는 것을 직접 본 후에 시흥이 크게 일어났으므로 위의 노래를 지어 칭송하였다. 이 시는 전반부 네 구절에서 작가가 이 歌行을 지은 이유를 서술하였고, 후반부 일곱 구절에서는 수공상인이 작품을 창작할 때의 일필휘지하는 정경을 묘사하였다. “취한 후 붓을 들면 용과 범이 포효하는 듯하네(醉後掃成龍虎吼)”라는 표현은 수공상인의 초서 기세가 마치 용이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 같이 생동하고 웅장함을 형용하는 것인데, 남들과는 다른 수공스님 서예의 특징적인 면에 대해 작가가 지니고 있는 탄복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승이 서승의 서예를 읊은 시를 한 수 더 보기로 한다. 만당 때의 시승인 貫休는 서승인 회소와 변광대사의 초서를 노래한 초서가 한 수씩을 각각 남기고 있는데, 두 수 모두 가행체 형식을 취하였다. 다음에 인용하는 시는 회소의 초서를 노래한 <회소의 초서를 보고 노래하다(觀懷素草書歌)>(卷828-32)라는 시이다.

張顛顛後顛非顛，
 直至懷素之顛始是顛。
 師不譚經不說禪，
 筋力唯于草書朽。
 顛狂却恐是神仙，
 有神助兮人莫及。
 鐵石畫兮墨須入，
 金樽竹葉數斗餘，
 半斜半傾山衲濕。
 醉來把筆癡如虎，
 粉壁素屏不問主，
 亂拏亂抹無規矩。
 羅刹石上坐伍子胥，
 削通八字立對漢高祖。
 勢崩騰兮不可止，
 天機暗轉鋒芒里。
 閃電光邊霹靂飛，
 古柏身中旱龍死。
 駭人心兮目眩暈，
 顛人足兮神辟易。
 乍如沙場大戰後，
 斷槍斷箭皆狼藉。
 又似深山怪石上，
 古病松枝挂鐵錫。
 玉兔筆，
 天龍墨，
 斜鑿黃金側剉玉，
 珊瑚枝長大如束，
 天馬驕癡不可勒。
 東却西，
 南又北，
 倒又起，
 斷復續。

장옥의 미침 후에는 미친 것도 미친 것이 아니더니,
 곧장 회소의 미침에 이르러 비로소 미친 것이 되었네.
 대사는 경을 담론하지 않고 선도 이야기하지 않으며,
 근력은 오로지 초서를 익히느라 피폐해졌다네.
 미치광이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신선이지만,
 신명의 도움이 있음이여 사람이 미칠 수 없음이로다.
 철석과 같은 획이여 먹이 딱 들어맞음이로다.
 금술동이에 죽엽청주가 몇 말이나 되는데,
 반은 기울이고 반은 쏟아 솜이 다 젖었네.
 취하여 붓을 드니 사납기가 호랑이와 같은데,
 분칠한 벽과 흰 병풍도 주인을 따지지 않고,
 마구 휘두르고 마구 발라 법도가 없는 듯하네.
 나찰석 위에 앉은 오자서인 듯하고,
 괴동이 두 다리 벌려 서서 한고조를 대하는 듯하네.
 기세가 동탕함이여 멈출 수 없음이로다,
 천기가 암전하여 날카로운 붓끝에 있구나.
 섬광이 번쩍이는 속에 벽력이 날리니,
 잣나무 고목 속에 목마른 용이 죽었네.
 사람 마음을 놀라게 함이여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사람 발걸음 멈추게 함이여 정신 아득하게 하네.
 때론 큰 전쟁이 지나간 후의 넓은 모래사장 같이,
 부러진 창과 꺾어진 활들이 여기 저기 낭자하네.
 때로는 마치 깊은 산 속 괴이한 바위 위에,
 말라 병든 솔가지에 석장이 걸려 있는 듯하네.
 옥토끼 털로 만든 붓,
 계곡의 소나무로 만든 먹,
 끌로 황금을 가르고 줄로 옥을 가는 듯하네.
 산호 가지 길게 자라 크게 묶어 둔 듯하고,
 천마가 날래고 사나워 고삐를 땔 수 없는 듯하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아래로 갔다 또 위로 가고,
 뒤집어졌다 또 일어나고,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네.

忽如鄂公喝住單雄信,
 秦王肩上搭著棗木槩.
 懷素師, 懷素師,
 若不是星辰降瑞,
 即必是河嶽孕靈.
 固宜須冷笑逸少,
 爭得不心醉伯英.
 天台古杉一千尺,
 崖崩岸折何崢嶸.
 或細微,
 仙衣半拆金線垂,
 或妍媚,
 桃花半紅公子醉.
 我恐山爲墨兮磨海水,
 天與筆兮書大地,
 乃能略展狂僧意.
 常恨與師不相識,
 一見此書空嘆息.
 伊昔張謂任華葉季良,
 數子贈歌豈虛飾,
 所不足者渾未曾道著其神力.

石橋被燒却,
 良玉土不蝕.
 錐畫沙兮印印泥,
 世人世人爭得測.
 知師雄名在世間,
 明月清風有何極.

갑자기 악공이 단웅신을 야단쳐 꾸짖는 듯하고,
 태종의 어깨 위에 대추나무 창이 얹혀있는 듯하네.
 회소 스님이여, 회소 스님이여,
 만약 별자리가 떨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강과 산의 신령이 잉태하신 이리라.
 진실로 왕희지를 냉소하더라도 괜찮은 터에,
 어찌 장지에게 심취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일천 척이나 되는 천태산 고목 삼나무인양,
 무너지듯 깎아지른 벼랑가에 어찌나 험준한지.
 혹은 아주 세미하여,
 신선의 옷자락 반이 갈라져 금실이 흘러내린 듯하고,
 혹은 아름답고 고와,
 빨그레한 복숭아꽃 같은 공자의 취한 얼굴인 듯하네.
 나는 걱정되네, 산을 먹으로 삼아 바닷물을 다 갈고,
 하늘이 붓을 쭈미어 대지에다 글을 써야만,
 이에 미친 스님의 뜻을 대략 펼쳐낼 수 있겠네.
 대사와 알지 못했음을 늘 한스러워했는데,
 이 글씨를 한 번 보자 공연히 탄식을 하네.
 이들 옛날의 장위와 임화와 엽계량 같은,
 여러 시인들이 시를 지어 드린 것이 어찌 과장이리오.
 부족한 자들은 그의 신력을
 전혀 말하지 않았을 따름이라네.

돌로 만든 다리는 다 타버려도,
 훌륭한 옥토는 침식되지 않는다네.
 추획사의 필획이요 인인니의 강한 서체이니,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으리.
 회소 선사의 걸출한 명성 세간에 전해질 것 알겠으니,
 청풍명월처럼 변치 않는 자연이 어찌 다함이 있으리?

貫休(832~912)의 속성은 姜이고, 자는 德隱 혹은 德遠이며, 婺州 蘭溪 사람이었다. 칠 세 때 출가하여 승이 되었는데, 羅漢圖를 잘 그렸고, 전서 예서 초서에 뛰어나 사람들은 그의 글씨를 ‘姜體’라고 칭하였으며, 그의

서예 작품 〈草書千字〉가 세상에 전하고 있다. 五代 때 蜀으로 들어가자 王建이 특별한 예로 존대하여 ‘禪月大師’라 불렀으며, 관휴에게는 “물병 하나 바리때 하나 지닌 채 점점 늙어가는 몸, 천 줄기 물과 천 개 산을 넘어 특별히 찾아왔네(一瓶一鉢垂垂老, 千水千山得得來)”라는²¹⁾ 시구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得得和尚이라 칭하였다. 따라서 관휴의 신분은 회소와 같았기 때문에 시에서 ‘불경을 담론하다는 譚經’, ‘禪學을 해설하다는 說禪’, ‘승이 입는 승복을 의미하는 山衲’, ‘승이 지니고 있는 지팡이로 禪杖 또는 錫杖이라고도 하는 鐵錫’ 등 승려와 관련있는 용어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다. 이 둘은 예술적 추구도 매우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의 회소에 대한 이해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자못 다른 면이 있었다. 집필과 운필 모두 常規를 타파하여 마구 휘두르고 마구 발라 법도가 없는 듯하다는 “亂拏亂抹無規矩.”는 바로 회소와 같은 이러한 구속받지 않고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자유분방한 운필이어야 입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긴 듯하다. 관휴는 회소가 서예상에서 매우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기꺼이 선방의 계율을 타파하고 스스로 서예의 規矩를 세웠던 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위의 시에서는 회소 초서의 용필과 결구와 장법이 변화무상함을 추켜세우기 위해 수많은 보조관념을 동원하여 비유적으로 묘사하거나, 역사 인물과 전고를 원용하면서 회소 초서의 뛰어난 묘사하였다. 당연히 관휴가 구속받지 않고 자유분방한 잡언의 가행체를 택하여 회소의 초서를 읊은 것도 시인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친 듯 호방함이 진실로 회소의 본색이지만 결코 세밀함과 아름다움도 잃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비록 미친 듯 열광적으로 회소의 서예를 찬양하지만 진정으로 회소 예술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여긴 듯하다. 본디부터 세속을 초월하는 신통을 지니고 있어 그가 불후의 서예가가 될 수 있었다고 여겼으니, 이는 회소 개인의 예술적 조예 때문이

21) 貫休의 시 〈진정을 펼쳐내어 축의 황제에게 바치다(陳情獻蜀皇帝)〉(《全唐詩》卷835-24)에 나오는 구절이다.

지 사람들의 칭송 때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회소가 장차 명성을 만고에 남겨, “명월이나 청풍과 같이 오래도록 존재하여 끝이 없으리라.(明月清風有何極)”고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V. 결론

이상으로 당대의 초서와 이 초서를 노래한 초서가를 선별하여 분석해보았다. 《全唐詩》 등을 통해 검색해본 결과 당대의 초서가로 모두 35수 정도를 선별할 수 있었다. 당대는 서예에서 해서가 성숙 확정되고 시가에서는 율시가 확립된 시대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초서가 크게 성행하였고 초서를 읊은 시기도 당대부터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초서가는 특이하게 가행체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서예로 유명한 승려가 상당히 많이 출현하였는데, 승려들은 다른 서체보다 특별히 초서에 조예가 깊은 이가 많아 초서로 유명한 초서승이 유독 많았다. 이는 승려이면서 書聖으로 불리어졌던 隋 때의 승려 智永의 전통과 狂草로 명성을 널리 떨쳤던 狂僧 회소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草書家들의 초서를 시로 읊은 당대의 草書歌 35수를 작가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중국 서예사에서 가장 유명한 초서가로 먼저 狂草의 대가인 張旭과 懷素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초서를 읊은 시가 18수가 되어 전체 시의 절반이 넘었다. 그리고 懷素, 獻上人, 高閑, 旻光(廣利), 禪月(貫休), 修公, 夢龜 등 書僧의 초서를 읊은 시가 모두 26수나 되어 당대 초서를 읊은 시 전체의 75% 가량을 점하고 있는데, 이는 승려와 초서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하나 더 특기할만한 것은 중당 이전의 草書歌는 주로 문인들의 창작이었으나, 中晚唐 시기에는 皎然, 貫休, 可朋 등 詩僧들이 창작한 초서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볼 때, 서승과 초서와의 관련성, 중당 이후 시승과 서승과의 관계가 갈수록 밀접하였다는 점을 파

악할 수 있고, 중만당 시기 이후에는 시승과 서승의 시기분야에서의 창작 활동과 교류가 꽤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의 형식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칠언시가 전체 시 35수 중에 20수를 차지하고 있고, 칠언 위주의 雜言體가 7수나 되었지만, 오언시는 8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칠언시와 오언시의 분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칠언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歌行體의 형식으로 창작된 시가가 20수나 되어 율시나 절구 등 근체시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楷書を 읊은 唐代의 시가 한 수 밖에 없어 상호 비교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虞世南의 해서를 읊은 시가 율시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초서와 가행체 시가의 상관성이 더 분명해진다고 하겠다.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였지만 해서, 예서, 팔분서, 전서 등 초서 이외의 다른 서체를 읊은 시와 초서를 읊은 시를 비교해본다면, 그리고 범위를 더 넓혀 당대 초서가와 당 이후의 초서가를 비교해본다면, 당대 초서와 가행체 시가와 상관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全唐詩》(上·下), 再版, 臺灣 宏業書局, 民國71年.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4.
 范潤華 著, 곽노봉·이정자 역, 《광초미학(狂草美學)》, 도서출판 다운샘, 2016.3.
 하문환 편, 김규선 역주, 《歷代詩話》(전6권), 소명출판, 2013.11.
 이종한 역주, 《한유산문역주》(전5책), 소명출판, 2012.6.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3.0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贊寧 撰, 《宋高僧傳》(全二冊), 中華書局, 1987.8.
 徐師曾, 《文體明辨》(全四冊), 昨晨社, 서울, 1984.3.
 王伯敏 等 主編, 《書學集成》(全三冊), 河北美術出版社, 2002.6.

- 王繼安 著, 趙誠庸 譯, 《草書概論》, 도서출판 다운샘, 2012.5.
王琦, 《李太白全集》(全三冊), 中華書局, 1990.
우재호, 〈唐代 書藝詩 試探〉, 《中語中文學》 第43輯, 2008.12.
우재호, 〈文房四友를 읊은 唐詩에 관하여〉, 《韓中言語文化研究》 第37輯, 2015.2.
우재호, 〈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第77輯, 2018.4.
楊克炎 選注, 《書法詠論》, 遼寧美術出版社, 1993.
葉軍 等著, 《中國詩學(四)》, 上海 東方出版中心, 199.5.

<Abstract >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was popular compared to other writing styles and the cursive song poetry reciting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was created in earnest during the Tang Dynasty. While no song poetry recited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before the Tang Dynasty, a large number of poets recited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as a poem during the Tang Dynasty, which must have been associated with its huge popularity during the Tang Dynasty.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situations of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and the cursive song poetry during the Tang Dynasty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and the narrative folk song based on its results. In order to conduct such analysis, this study extracted how many cursive song poems were written by examining a number of books such as *QuanTangshi: Complete poetry of the Tang* (全唐詩).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35 poems by separately extracting poems which dealt with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as a theme or were related only to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among these poems on calligraphy.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narrative folk song of the Tang Dynasty under the hypothesis that the narrative folk songs mainly composed of free-style long and short line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poems which recited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during the Tang Dynasty, in that such a writing style was characterized by its free style. The narrative folk song whose form was free without any restriction to its width and length must have been the most appropriate poem in reciting what was related to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with no fixed rules to its form.

Key Words : 草書(The Cursive Style of Writing), 歌行體(The Narrative Folk Song Style), 草書歌(Cursive Song Poetry), 書藝詩(The poems on Calligraphy), 書僧(Monk Calligrapher)

